

# 日本の 經濟發展\*

柴 垣 和 夫\*\*

〈目 次〉

- I. 封建時代의 市場經濟(16세기~1840년)
- II. 開國政策과 明治維新(1850년대~80년대)
- III. 產業資本의 確立(1890년대)
- IV. 日本帝國主義와 兩次世界大戰(1901~45년)
- V. 美國 占領下의 經濟回復 및 戰後 改革(1945~54년)
- VI. 高度經濟成長의 第一段階—重化學工業化(1955~64년)
- VII. 高度成長의 第2 段階—經濟大國을 向하여
- VIII. 第1次 石油危機의 克服(1974~79년)
- IX. 第2次 石油危機와 行政改革(1980~85년)
- X. 現在의 狀況과 問題點(1986년~ )

## I. 封建時代의 市場經濟(16세기~1840년)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근대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적 기원은 16세기의 대탐험시대(the great navigation era)에 스페인, 포르투갈, 네델란드 등에 의해 주도된 商業革命 속에 있다. 日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기에서 자본주의의 기원을 구할 수 있다.

日本の 봉건사회는 13세기 초 가마쿠라 쇼군(Kamakura Shogunate)시대에 형성되어 몽고침입 이후 와해되기 시작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시장경제가 16세기 內戰期(the Civil War Era)에 이르기까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局地的 시장들과 사카이(堺)와 같은 商業自由市들이 형성되었다. 明나라 및 여타 아시아 지역과의 무역도 발전하였으며 많은 도시들이 번성하였다. 17세기 초에는 日本상인의 세력은 중국상인의 세력을 능가하였으며 유럽상인들의 세력과 겨룰 수 있을 정도였다고 말해지고 있다. 1590년에 토요토미가 이끄는 중앙정부가 봉건영주 뿐 아니라 상인자본의 지원을 받아 수립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그 정부는 서구의 絕對王政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토요토미정부를 계승한 도쿠가와 쇼군(Tokugawa Shogunate)은 권력을 집중시키고 1639

\* 本論文은 1990年 3月 22日 本研究所가 주최한 「東北아시아의 經濟發展과 協力」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것임.

\*\* 시마가키 카즈오, 東京大學 社會科學研究所 教授

년에 문호를 닫아 버렸다. 그리하여 일본인의 해외진출은 전혀 허가되지 않았으며 무역은 극히 제한되고 幕府에 의해 독점되었다. 그 결과 日本은 200여년 동안 국제적 시장경제의 발전으로부터 隔離되었다.

외국과의 무역은 鎖國政策으로 제한되었지만 국내 시장은 발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인 자본도 발전하였다. 농촌으로의 시장경제의 침투와 함께 지주와 소작농으로의 계급분화도 진행되었다. 絹絲業이나 織物業과 같은 약간의 매뉴팩처공업이 농업과 분리되었으며, 소규모 공장이 仲介商制度(commission merchant system)하에서 발전하였다. 게다가 평화가 2세기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독특한 일본식 문화가 성숙하였으며 평민의 교육수준도 증진되었다. 이 모든 요소들 덕분에 日本은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반면 대부분의 아시아諸國은 후에 西歐諸國에 의해 植民地化되었다.

## II. 開國政策과 明治維新(1850년대~80년대)

日本은 鎖國政策 하에서 평온을 누리고 있었지만, 西歐諸國은 17세기~18세기에 중상정책 및 식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19세기에 西歐諸國은 잇달아 산업혁명을 경험하였다. 1850년대에 그들의 함대는 차례로 日本에 와서 德川幕府로 하여금 개항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德川幕府는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여 1854년의 美日友好協定을 승인하였다. 이에 이어 서구의 여타 諸國과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西歐諸國과 체결된 통상협정은 治外法權條項을 포함하고 관세자주권을 포기하는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리하여 日本과 서구 간의 경제발전 상의 매우 큰 격차 때문에 무역은 日本에 대해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였으며 1868년에 明治維新이 일어났다.

새 정부의 구성원은 前職 하급무사들이었다. 그들은 1840년의 중국 아편전쟁의 결과를 보고서 日本이 西歐諸國처럼 근대화하고 산업화하여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새 정부는 봉건적 諸制度 및 諸行爲를 제거하는 데 착수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明治維新은 시민혁명으로 성격지워진다.

1869년에는 봉건적 신분제가 폐지되었다. 1871년에는 씨족부락이 縣體制로 대체되었으며 이로써 중앙집권화된 정치적 통제가 확립되었다. 이동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무역 및 토지매매의 자유가 확립되었다. 이 모든 조치들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필수적인 노동력의 상품화를 위한 전제조건들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었다.

1873년에 明治정부는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고 地租改正을 통하여 제정의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前職 봉건무사들의 급료를 단 한 번의 地券수여로 대체함으로써 그들을 제거하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이 地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無產者의 지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새 정부는 운송, 통신, 금융, 군사, 교육 등의 근대적 제도를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근대 산업의 기반을 닦았다. 그러나 조세수입만으로 이 모든 작업을 위한 거대한 지출을 메우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한편에서는 미쓰이나 미쓰비시 등과 같은 거대 상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의존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不兌換지폐의 발행을 통해서 재정적자를 보충하였다. 그 결과 日本은 격렬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였다. 1881년에 정부는 긴축정책을 실시하여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고자 하였다. 인플레이션은 松方디플레이라는 심각한 디플레이션으로 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과 前職 무사들이 그들의 토지와 재산을 상실함으로써 지위를 잃고 無產者로 되었다. 이리하여 일본경제는 原始的 축적단계를 통과하였다. 지금까지 묘사한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서구에서 이미 자본주의가 자유주의 단계의 절정을 통과하여 帝國主義段階로 접어든 시점에서 後發國이던 日本의 조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産業資本의 確立(1890년대)

1887~90년 사이에 일본경제는 民間部門에서 최초의 공업화 붐을 맞이하였다. 붐은 철도 산업에서 시작되었으며 綿織物業과 광산업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것은 면직물업의 확립이었다. 면직물업의 회사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자본은 주로 關西 지방의 상인 및 지주로부터 조달되었다. 이들 회사들은 萬維 이상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며 국내 原綿에서 인도 및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原綿으로 원료를 전환하였다. 金巾(thin cotton yarn)의 생산은 어려웠지만 이 회사들은 英國產 링방적기(ring spinning machine)와 증기기관을 사용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농촌으로부터 나온 出稼勞動者들인 어린 여공들을 고용함으로써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었다. 그들은 또한 전등을 공장 내에 설치하여 시설을 밤낮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면공업이 1890년대를 통하여 번성하여 국내시장을 장악해 들어갔다. 게다가 淸日戰爭(1894~95년) 이후에 그것은 수출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점은 輸入代替工業化

의 전형적인 예이기도 하다. 면공업의 확립과정은 日本에서의 산업자본주의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면공업 이외의 중화학공업과 같은 근대적 산업에 눈을 돌려 본다면, 그것들은 자본의 부족과 기술수준의 劣位 때문에 발달하지 못하였다. 중화학공업의 영역에서는 日本은 西歐諸國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들 수입품의 代金決済에 필요한 外貨를 획득하기 위해 日本은 生絲, 쌀, 茶, 석탄, 銅 등과 같은 1차 산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하였다.

결국 우리는 일본경제의 再生産構造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아시아諸國과의 관계에서 日本은 原綿과 같은 원료를 수입하고 綿布 및 면직물과 같은 공산품을 수출하는 선진공업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 서구와의 관계에서는 日本은 1차 산품과 半製品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덜 발전된 농업국의 유형을 따르고 있었다.

면공업의 발달을 통한 산업자본의 확립은 일본경제가 미쓰이나 미쓰비시와 같은 정치적 특권상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자극하였다. 이 시기에 미쓰이와 미쓰비시는 광산, 은행, 상업에 기반을 둔 거대한 기업으로 발달하였다.

면방적업은 본래 해외로부터 이식된 것으로서, 대규모의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전통적 공업으로 성격지워지는 絹絲공업과 여타의 직물업들은 여전히 영세하였으며 제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때까지 仲介商人의 지배 하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로 일본공업의 二重構造의 原形이 형성되었다.

근대적 공업이나 전통적 공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농촌지역에서 나온 젊은 여성노동력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농촌에는 거대한 過剩人口가 머물러 있게 되었다. 따라서 農家經營은 규모에 있어 여전히 매우 영세하였으며, 가족구성원이 그것을 담당하였다. 농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가족에 의해 경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은 매우 낮은 수준에 묶여 있었고 이윤을 남기기란 힘든 일이었다. 그 결과 農民層分解는 자본가—노동자로의 분할이 아니라 지주—소작농 간의 분할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경제의 後發性에서 오는 제약이었다.

그런데 1897년에 日本은 淸日戰爭에서 중국을 패퇴시켰으며 중국으로부터 획득한 전쟁배상금을 이용하여 金本位制를 확립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경제는 국제사회에서 그 위치를 잡아 나갔다.

#### IV. 日本帝國主義와 兩次世界大戰(1901~45년)

20세기 초에 전면적인 帝國主義時代가 지구상에 도래하였으며 日本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日本의 국내적 諸條件은 제국주의 단계에 이를 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았지만 국제적 諸狀況이 日本을 제국주의로 유도하였다. 淸日戰爭과 露日戰爭이라는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일본은 대만과 南사할린 그리고 한반도를 식민지화하였다. 兩 전쟁 이후 정부는 國營야와따(八幡)제철소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군수병창시설을 확충하였다. 그리고 또한 철도경영을 국유화하였다.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중화학공업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였다. 민간자본의 축적이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 모든 움직임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財政支出의 급증을 야기하였다. 예를 들면, 露日戰爭에서 日本의 군사지출은 公債의 해외발행을 통해 메워졌다. 게다가 日本은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는 데에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막대한 財政赤字에 시달렸다. 더우기 經常收支 또한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수입증가로 말미암아 赤字로 돌아섰다.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해외에 公債를 발행하였지만, 제 1차 세계대전 직전에 국민경제는 난관에 빠지게 되었다.

1914년에 제 1차 세계대전이 勃發하였다. 主戰場이 유럽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더불어 日本은 유럽으로의 수출급증에 따른 이득을 누리게 되었으며, 막대한 의화를 벌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日本은 일시에 債務國에서 債權國으로 탈바꿈하였으며 경제를 재건할 여유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20년의 戰後恐慌과 1924년의 關東대지진, 그리고 1927년의 金融恐慌 등이 모든 것이 결합하여 일본경제에 또 하나의 위기를 가져 왔다. 1924년 이래로 西歐諸國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보냈지만, 日本은 고질적인 침체라는 굴레 속에서 이 시기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의 사실들에 주목하여야 한다. 첫째, 戰時에 유럽으로부터의 중화학제품의 수입이 두절됨에 따라 民間部門에서의 중화학공업의 발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둘째, 戰時 및 戰後의 도시화의 진전은 도시의 기본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투자를 촉진하였으며, 그러한 투자는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적 성장을 유지시켜 주었다. 셋째, 자본집적은 고질적인 침체를 배경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한편에서는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와 같은 재벌콘체른(Konzern)이 형성되었는데, 이들은 힐퍼딩(R. Hilferding)이 개념화한 金融資本의 일본형이었다. 콘체른의 頂上에는 閥族에 의해 지배되는 持株會社가 있으며 지주회사는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많은 主要 회사들을 통합하였다. 다른 한편, 매뉴팩처 부문에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兪公兪에서는 合併을 통해 5대 주요 회사들이 형성되었으며, 그들은 카르텔협정을 맺었다. 그리하여 일본경제 내에 金融資本의 지배 하의 독점체제가 확립되었다.

1930년에 日本은 제 1차 세계대전 勃發 이래로 중단되어 온 金本位制로 복귀하였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日本은 그 전년도 가을에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에 의해 타격을 받았다.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의해 타격을 받은 것과 동시에 日本 또한 심각한 침체로부터 고통을 받았다. 여러 가지의 사회적 문제들이—특히 농촌에서—발생하였다. 또한 사회적 불안이 나타나고 그 때문에 극좌 및 극우세력에 의한 급진적인 사회운동이 생겨났다. 공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본제국주의는 大正데모크라시 이래로 전통이 되어 온 정당정치를 버리고 군사파시즘을 내세웠다.

사회주의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억누르면서 軍閥과 정부는 외부로의 군사적 침략을 추진하였다. 日本은 1931년에는 만주, 그리고 1937년에는 중국 본토로 침략을 감행하였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日本은 1931년 말에 재차 금본위제를 중지하였다. 管理通貨制 하에서 日本은 외환덤핑을 통해 수출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였다. 동시에 赤字補填公債의 발행을 통한 군사지출의 확대는 중화학공업의 회복을 북돋우었다.

금본위제의 최종적인 폐기는 일본경제가 소위 「國家獨占資本主義」라는 현대자본주의로 이행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본정부가 채택한 赤字補填公債의 발행을 통한 재정정책은 세계적으로 케인지안 정책이 가장 성공한 예 중의 하나였다.

대공황 이래로 日本이 불럭경제 하에서 수출을 통해 해외로 팽창하고 군사적으로 침략을 감행함에 따라 日本과 미국 및 영국 사이에 대립이 점점 격화되었다. 1941년 12월에 日本은 兩國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제 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美·日간의 경제력의 커다란 격차 때문에 전쟁은 1945년 8월에 日本의 패배로 끝을 내렸다.

## V. 美國 占領下의 經濟回復 및 戰後 改革(1945~54년)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日本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에 의해 점령당하였다. 점령세력의

주도 아래 日本 경제는 민주화 과정을 겪었다. 첫째, 재벌의 해체는 재벌의 閥族들이 소유한 持株會社들을 소멸시켰다. 그 결과 이전에 재벌의 子會社였던 회사들이 벌족들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새 獨占禁止法 하에서 신축적인 기업그룹으로 재조직되었다. 둘째, 농지개혁은 농촌으로부터 不在地主들을 제거하고 독립자영농들에 의해 경영되는 새로운 농업제도를 탄생시켰다. 셋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諸權利가 보장되고 현재와 같은 勞使關係가 도입되었다. 국가재정과 금융의 영역에서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公債發行이나 중앙은행에 의한 公債引受를 금지하는 등의 다양한 개혁이 이뤄졌다.

그러한 경제개혁과 더불어 또한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체제가 제도화되었다. 가령, 남녀 평등이 보장된 보통선거가 일본정치에 도입되어 대중민주주의의 시대를 가져 왔다. 사회보장제의 실시를 통해 복지국가의 틀이 마련되었다. 이 모든 개혁은 1946년에 반포된 새 헌법에 명시되었으며, 이 개혁들을 통해 日本은 바이마르공화국 하의 독일과 뉴딜 하의 미국에 기원을 둔 현대자본주의체제의 서방을 뒤따라 잡았다.

경제개혁 및 정치개혁이 제 2 차 세계대전 직후에 적극적으로 수행되었지만 일본경제는 생산침체와 같은 많은 난관에 직면하였으며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그러나 1947~48년 사이에 日本에 대한 미국의 점령정책은 東西 간의 냉전의 시작과 함께 준엄한 정책으로부터 지원정책으로 극적인 변화를 하였다. 미국은 경제원조를 늘려 일본경제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원조를 받아 일본정부는 생산회복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소위 傾斜生産體制(priority production system)를 통해 석탄 및 철강 생산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1949년에 인플레이션은 도지 플랜(Dodge Plan)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디플레이션정책에 의해 완화되었다. 그와 동시에 달러당 360엔에서 單一固定換率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戰後 일본경제의 회복을 결정적으로 가속화시킨 것은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 기간에 日本은 미군의 軍需補給基地 역할을 하였다. 미국에 의해 요구된 군수 조달품은 5년 동안에 3조달러에 달했으며, 그것의 크기는 통상적인 무역에서의 수출액에 필적하는 것이었다. 1951년에 이르기까지 日本경제는 공업생산, 실질 GNP, 실질 설비투자, 개인적 소비 등과 관련하여 戰前인 1934~36년의 수준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호황을 경험한 산업들을 본다면, 그것들은 직물업, 석탄산업과 구식의 금속·기계공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 단계에서의 산업구조가 여전히 戰前의 구조와 동일한 상태로 머무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일본경제의 회복은 冷戰이 熱戰으로 바뀌는 국제적 상황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점 덕분에 日本은 미국블록의 일원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확

특할 수 있었다. 日本은 미국의 핵우산 및 달러우산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1951년 9월에 조인되고 다음해 4월부터 발효된 샌프란시스코講和協定 및 美日安保條約의 체결을 통해 분명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 VI. 高度經濟成長의 第一段階—重化學工業化(1955~64년)

1955년에서 1964년 간의 10년 동안에 日本은 실질 GNP가 연평균 10%로 증가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이 高度經濟成長은 주로 국내수요의 급증, 특히 民間部門에서의 설비투자에 의한 수요증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설비투자는 세 번의 붐, 즉 1955~56년의 진무(神武)붐, 1958~61년의 이와토(岩戶)붐, 1963~64년의 올림픽붐을 창출하였다. 경제적 내용의 측면에서 日本의 高度經濟成長을 살펴 보면, 우리는 그것을 중화학공업화에 의한 산업구조의 세련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첫번째 붐에서는 19세기에 서구에서 발달한 전통적인 중공업, 즉 제철제강공업, 조선업, 重電機械工業 등이 확립되었다. 두번째 붐에서는 戰間期에 미국에서 발달한 자동차공업 및 家電製品業과 같은 耐久消費財工業이 확립되었다. 세번째 붐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나타난 합성섬유, 석유화학, T.V., 전자, 원자력 등을 포함하는 新産業이 등장하였다. 한 마디로 말해서 日本은 西歐諸國에서는 약 半세기라는 긴 세월이 소요되었던 이 모든 중화학공업을 약 10년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동시에 확립하였다.

이들 산업과 아울러 日本은 대규모 화력발전소는 물론 대규모 수력발전소도 건설하였다. 또한 건설업도 급속히 성장하였다.

문제는 어떤 조건 및 요인 덕분에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동반한 高度經濟成長이 가능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추상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일반적인 要因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전쟁에 의한 荒廢化로부터의 복구에 따른 광범한 수요이고, 둘째는 後發國인 日本의 경제적 조건의 후진성이 갖고 있던 利點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면,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생산요소의 조달과 관련해서 日本에게 유리했던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조건은 서구, 주로 미국으로부터 선진 기술의 도입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은, 日本의 특별한 조건에 적합하도록 변형된 형태의 기술이전을 통해서 이뤄졌다.

두번째 조건은 中東으로부터 저렴한 원유의 도입이 가능했다는 점이었다. 이 기간 동안



에 中東의 油田을 지배하고 있던 국제석유상들은 소비국에서 원유를 정제한다는 경영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한 전략에서 그들은 배럴당 약 2달러라는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하였다. 저렴한 원유의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傳來의 석탄산업은 침체에 빠졌으며, 중화학공업에서는 저렴한 원유 덕분에 엄청난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세번째와 네번째 조건은 노동력과 자금의 이용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日本은 기술 및 원료의 측면에서는 해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노동력 및 자금은 국내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었다.

노동력의 크기와 관련해서 보면, 後發國으로서의 日本은 戰前부터 농촌에 거대한 過剩人口를 가지고 있었다. 매우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여 노동자가 되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노동의 질이 매우 우수했다. 게다가 日本의 대기업노동시장의 특징 중의 하나인 年功賃金制(seniority wage system) 하에서 그들의 초임은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성장하고 있던 중화학공업은 이러한 조건들로부터 커다란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말할 것은 투자를 위한 자금의 조달이다. 日本의 기업들은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중화학공업의 건설 때문에 자금부족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家計의 높은 저축률이 자금조달에 기여하였다. 家計로부터 나온 자금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업으로 流入되었다. 이 외에도 시중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신용확대는 통화공급을 보충하였다.

다음으로 高度經濟成長을 가져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누구였는가를 논의해 보자. 그것은 주로 民間部門, 특히 재벌 해체 이후 새로이 형성된 기업그룹에 속하는 거대 회사들이었다. 6개의 주요 기업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쓰이, 후요(不豫), 다이이치(第一), 산와(三和)가 그들이었다. 그들은 새로이 등장한 중화학공업에 착수하는 데 힘썼으며 그 영역에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느라 서로 경쟁하였다. 기업그룹에 의한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은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기를 꺼리던 戰前의 재벌의 행동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중화학공업화에 발맞추어 중소기업의 회사들의 상황도 또한 변하였다. 戰前에는 중소기업의 회사들은 대부분 직물업에 종사하면서 仲介商人의 지배 하에 있었다. 진후 중화학공업의 발달과 함께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중화학공업 부품을 공급하거나 半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많은 부품공급회사들이 下請業者로서 母會社에 직접 連繫되어 있었다.

· 비록 民間部門이 高度經濟成長을 가져오는 데 中樞的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는 다방면에서 자본축적을 가속시켰던 공공부문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일본경제가 갖고 있던 유리한 기반 덕분에 GNP對比 정부지출의 비율은 先進諸國 중에서 가장 낮았으며, 국가재정은 長期公債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재정지출의 내용을 보면, 자본지출이 총예산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부투자와 公債 프로그램에서 강조되고 있던 사업은 도로, 항구, 항만, 교량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이었다.

대의정책을 살펴 보면, 중요했던 것은 정부가 실시한 外換割當制였다. 이 제도는 수입을 통제하고 또한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보호하는 온실로서 가능하였다. 정부는 유망한 산업을 합리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日本通産省(MITI)의 유명한 행정적 지도 또한 효과적인 것이었다.

더욱이 1955년부터 정부는 5개년 경제계획 및 10개년 경제계획을 마련하여 투자량 결정에 대한 명확한 지표를 民間部門에게 제시해 주기 시작하였다. 여타의 경제계획 속에서 美日安保條約의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1960년 직후 이케다(池田) 내각은 그 유명한 國民所得倍增計劃을 세웠다. 이 특별한 계획은 국민들에게 高度經濟成長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다.

전후 초기부터 과격했던 노동운동은 高度經濟成長의 과정에서 침체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운동은 노사 간의 조화로운 관계로 대체되었으며 이것은 오늘날의 일본식 경영을 특징지우고 있다.

1964년에 日本은 IMF 下의 第8條國이 되었으며, OECD에도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日本은 공식적으로 선진국의 지위에 도달하였다.

1955년에서 1964년 사이의 이 특별한 시기가 전후 일본경제에서 거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시기였다고 하는 것은 과대평가가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제약이 있었다. 이미 언급한 바대로 설비투자와 같은 국내수요의 확대가 경제성장의 주요한 원천이었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배태하였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그것은 급속한 수입증가를 야기하고 수출을 둔화시켜 經常收支의 적자를 발생시켰다. IMF의 固定換率制 하에서 정부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緊縮通貨政策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특수한 제약이 바로 國際收支上의 上限이었다고 할 수 있다.

## VII. 高度成長의 第2段階—經濟大國을 向하여

1964년과 1965년 사이에 日本은 高度成長이 시작된 이래 최초로 심각한 불황을 겪었다.

경제불황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청년노동력의 부족이었다. 1960년대 초반 이래로, 청년노동자의 初賃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기업의 임금비용을 증가시켰다. 다른 하나의 원인은 은행대출에 의거한 대규모 투자의 결과로 발생한 자본비용 및 지급이자의 증가였다. 이와 같은 비용의 증가는 기업의 採算性을 악화시켰으며, 경제불황을 초래했다. 또한 1960년대에는 새로운 경제환경이 출현하였다. 달러위기에 직면하여 미국은 日本으로 하여금 무역과 자본거래를 자유화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요구가 실행되었을 때 日本의 實業系는 심각한 위기감에 빠지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대기업들은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서로 合併하거나 다른 기업과의 提携를 결정하였다. 정부도 또한 1965년에 경제불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도지 라인(Dodge Line) 이후 최초로 赤字補填債券과 進駐채권이 정부에 의해 발행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不況을 극복하기 위해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사실 불황은 단기간에 종식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1965년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서 자유화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은 불필요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日本은 급격한 수출증가를 기록했다. 日本은 1964년까지는 미국에 대해 貿易收支 적자를 기록했지만, 1965년 이래 계속해서 貿易收支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日本의 전체 貿易收支와 經常收支도 또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長期資本計定은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었으며 日本은 자본수출국으로 되었다.

수출에 의해 주도된 景氣回復은 다시 매우 활발한 설비투자를 초래하였으며, 이자나기景氣라고 불리는 호황을 결과하였다. 이 호황은 1970년까지 4년 9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이것은 전후 日本의 가장 긴 호황이었다. 1966년에서 1973년까지 석유위기 이전의 시기에 日本은 연평균 10.8%의 실질 GNP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의 설비투자는 다음 두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는 勞動節約의인 自動化 생산체제의 도입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량생산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공장의 확장이었다.

그 당시까지는, 공업지역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의 3개 대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중화학공업의 기업들은 석유, 원료, 자신들의 생산품 등을 보다 편리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태평양 연안을 따라 새로운 공업지역을 선정하기 시작했다.

활발한 설비투자의 결과로서, 日本의 중화학공업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획득하였다. 1968년에 日本은 GNP에 있어서 西獨을 능가하였으며 자본주의 세계에서 미국 다음가는 經濟大國으로 되었다.

제 2 단계의 고도성장은 제 1 단계의 고도성장과 약간 달랐다. 日本은 국내외에서 많은 갈



었다.

이것은 정치발전에 반영되었다. 주요 도시와 縣의 지방정부에서는 야당이 집권당으로 되었다. 總選에서 집권당인 自民黨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1960년대 이후 50% 이하로 떨어졌다. 야당이 집권하고 있던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와 환경문제를 보다 중요시하였다. 이것은 自民黨이 이끄는 중앙정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1971년에 환경청이 새롭게 설립되었다. 1973년에는 物價連動制를 포함하는 5만엔 수준의 國民年金計劃이 시작되었다.

당시 수상이었던 다나카(田中)에 의해 추진되었던 일본열도의 재편계획은 땅투기를 유발시켰다. 1972년과 1973년에, 인플레이션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日本경제는 과열되었다. 日本이 석유위기를 맞게 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 VIII. 第 1 次 石油危機의 克服(1974~79년)

1973년 가을에 발생한 제 1 차 석유위기는 직접적으로는 아랍石油輸出國機構(OAPEC)의 石油戰略을 드러낸 제 4 차 中東戰爭과 OPEC의 原油價格引上이 발단이 되었다. 그러나 석유위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1960년대에 분명해진 남-북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시기에, 開發途上國들은 자국의 자원을 통제할 권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세계 石油商들에 대한 OAPEC와 OPEC의 강한 반발은 과격한 행동으로 귀결되었다. 석유위기의 결과로서, 여타 先進諸國과 마찬가지로 日本경제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었다. 日本이 석유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미 日本경제는 과열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日本에서 석유위기는 여타 先進諸國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1973년 가을과 1974년 봄 사이에, 日本의 연평균 도매물가상승률은 30%였으며, 소매물가상승률은 25%였다.

이러한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여, 1974년 日本의 노동조합은 대중교통수단의 총과업을 포함한 강력한 春闘를 전개하여 35%의 임금인상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물가상승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勞動分配率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업은 임금비용의 증가를 가격인상으로 전가하려고 노력했다.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의 위협에 직면하여, 같은 해 3월에 정부는 모든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원유가격인상에 따른 가격조정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격인상은 억제되었다. 그러나 그내신 정부의 총수요 억제조치에 따라 산업의 操業率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증가한 임금비용은 기업의 채산성을 감소시켰다. 그리하여 日本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 日本은 1974년에 전후 최초로 마이너스성장

을 기록하였다.

1973년과 1974년 사이에, 日本은 實質 GNP成長率의 10% 감소를 경험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여러 선진국들이 겪은 충격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日本 경제가 그 후 이룩했던 회복은 여타 선진국들의 그것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 1976년에서 1979년 사이에, 日本은 연평균 5%의 GNP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회복에 이르게 한 세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요소는 수출의 급격한 증가였다. 이것은 미국정부가 실시한 새로운 支出政策에 힘입은 것이며, 日本은 세계경제의 추진력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이용하였다. 두번째 요소는 赤字補填公債를 포함하는 대규모 公債발행을 통한 재정지출의 확대였다. 세번째 요소는 에너지 절약과 노동 및 금융비용의 삭감을 통해 기업에 의해 수행된 소위 「縮小經營」이었다. 또한 이에 덧붙여서,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에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했던 노동조합에 의해 뒷받침된 일본기업의 협동적 분위기에 주목해야 한다.

縮小經營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日本의 산업구조는 크게 변화하였다. 한편으로 금속, 석유화학 그리고 造船과 같은 資源消費型産業은 침체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자동차, 전기, 전자, 그리고 정밀기계산업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였다. 우리는 위와 같은 것들을 지식집약적인 高附加價值産業의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1978년에서 1979년 동안에 다시 증가한 설비투자의 내용에 주목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기술의 진보의 결과물들인 數値制御(NC)공작기계, 로봇, 그리고 사무자동화 등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공장운영기법의 도입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日本의 산업기술혁신은 흔히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혁명이라고 불리어진다. 서구에서는 노동조합이 이와 같은 발전양식에 강하게 반발하였지만, 日本에서는 협조적인 노사관계의 구조 하에서 첨단기술의 도입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 1980년대 초반에 全世界에서 이용되고 있던 로봇의 80%는 日本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기술혁신은 생산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이전에는 日本의 산업의 성격은 重厚長大한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현재에는 輕薄短小한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일본경제는 제 1차 석유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또한 사실이었다. 첫째, 公債의 대량발행은 재정의 위기를 야기시켰다. 1979년에 오히라(大平)내각은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세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에 실시된 總選에서 自民黨이 패배함으로써, 그와 같은 시도

는 취소되었다.

둘째, 公債의 대량발행은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초래하였다. 그 당시까지, 화폐시장에서의 이자율은 정부의 관리지도에 의해 낮은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었다. 낮은 이자율로 계속 公債를 사들여 왔던 금융기관들은 公債발행이 급격히 증가하자 더 이상 사들이기를 꺼리게 되었다. 금융기관의 이러한 반발에 직면하여, 정부는 公債발행에 있어서 보다 伸縮的인 조진을 채택하게 되었다. 동시에 未支拂公債와 관련하여 정부는 채권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금융시장의 자유화는 규제받지 않는 예금이나 新種證券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창조하였다. 그 결과 은행과 증권회사 사이에 존재하던 전통적인 경계선은 이제 더욱 희미해지게 되었다.

셋째, 수출증대, 특히 高品質의 일본상품에 의한 全世界市場의 침투는 日本과 여타 국가들과의 무역마찰을 심화시켰다. 심각해진 무역마찰에 직면하여, 미국은 철강제품에 트리거價格制度(trigger price system)를 도입하였으며, 日本은 미국으로의 칼라TV 수출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야만 했다. 유럽공동체도 또한 日本이 철강제품에 대해 자율규제를 하도록 하였다.

석유위기 이후에 일시적인 적자를 보였던 貿易收支는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며, 1976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다. 흑자의 누적을 배경으로 하여, 환율은 급속하게 변하였다. 석유위기 이후 잠시 동안 엔화의 환율은 달러화에 대해 360엔까지 떨어졌지만, 1978년에는 다시 176엔으로 상승하였다. 제 2차 석유위기가 세계경제를 다시 강타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 IX. 第 2 次 石油危機와 行政改革(1980~85년)

1979년 2월에 발생한 이란의 정치적 변화는 석유생산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다. 1979년에서 1980년 사이에, OPEC은 석유가격을 두 배로 인상시켰다. 1983년 3월에 석유가격은 배럴당 35달러라는 最高値에 도달하였다. 서독을 제외한 서유럽은 석유가격 상승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당시 景氣가 회복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그플레이션은 매우 심각하였다. 그러나 제 2차 석유위기는 일본경제에 대해 단지 制限的인 충격만을 주었다.

1979년과 1980년 사이에 經常收支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日本은 단지 貿易收支 흑자분의 감소만을 경험하였다. 1980년의 물가상승률은 도매물가 18%, 그리고 소매물가 8%였다. 달리 말하면, 全體的인 물가상승은 석유가격의 상승률 내에서 억제되었다. GNP

성장률과 공업생산은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으며, 기업의 採算性은 적절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었다. 외국 사람들은 일본경제의 훌륭한 성과에 관해 얘기하기 시작했으며, 바로 이러한 환경 하에서 포겔(E. Vogel)박사의 『世界 第一의 日本』이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문제는, 일본경제의 이와 같은 성과를 가능하게 한 요소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첫째, 제 1 차 석유위기와 제 2 차 석유위기 사이에는 초기 경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제 1 차 석유위기의 시기에 일본경제는 이미 과열되어 있었지만, 제 2 차 석유위기의 시기에 는 그렇지 않았다. 둘째, 기업은 제 1 차 석유위기의 시기에서 이미 자신들의 과제를 습득 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日本의 기업이 물가상승을 임금인상과 連繫시키지 않는 데 성공하였다는 사실이다. 임금인상은 생산성 증가율의 범위 안에서 억제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경제는 노동분배율을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였다. 日本經營者團體聯盟(日經聯)은 생산성 기준원칙에 依據한 소득정책을 제안하였고, 노동조합도 또한 그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 日本은 석유 위기의 부담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그러나 1980년에서 1982년 사이 3년 동안에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沈滯를 경험하였다. 1980년까지 약 5%였던 日本의 경제성장률은 1981년에 4%로 떨어졌고, 1982년과 1983년에는 3%였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미국과 영국 그리고 日本의 경제정책은 케인지언 형태에서 통화주의적 형태로의 극적인 변동을 하였다. 미국에서 채택된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에서 채택된 대처리즘(Thatcherism)은 거대정부와 사회적 부패를 초래했던 케인즈경제학과 福祉志向의인 전통적 경제정책에 반대하였다.

日本에서도 行政改革라인으로서 스즈키(鈴木)와 나카소네(中曾根) 내각 하에서 비슷한 정책들이 수행되었으며, 그것은 1981년에 설립된 行政改革委員會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일본정부가 1979년에 소비세의 도입에 실패한 후, 재정위기는 사회보장비지출의 확대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다. 行政改革라인은 세금의 증가없이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赤字補填公債의 발행을 감소시키려고 했다. 임금억제와 더불어 緊縮財政政策은 국내수요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켰다. 따라서 경제성장은 주로 국외수요에 의존하였다.

수출은 제 2 차 석유위기 이후의 엔화 약세에 힘입어 급속히 증가하였다. 1981년 이래로 經常收支 흑자는 다시 누적되었다. 그 결과 무역마찰은 확대되어 공작기계, 자동차, VTR, 반도체 산업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심각한 무역마찰은 해외직접투자의 패턴을 변화시켰다. 당시까지 해외직접투자는 다음



세 가지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 가지는 資源富國에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였다. 두번째 패턴은 開發途上國에서 低賃金を 이용하기 위한 투자였다. 세번째는 선진국에서 은행과 무역회사의 지점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 당시에 해외직접투자에 나타난 새로운 특징은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자동차, 전기, 전자산업과 같은 제조업 부문의 직접투자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1970년대 중반의 경우와 달리, 수출의 증가와 經常收支 흑자의 누적이 엔화의 強勢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 실시된 레이거노믹스로 인해 발생한 매우 색다른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레이거노믹스 하에서, 통화주의에 의거한 긴축통화정책은 비록 대량실업의 댓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수 이자율을 창출해 냄으로써 1982년에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진정시켰다. 동시에 준비확장과 供給重視政策인 減稅政策의 실패는 聯邦政府의 재정적자를 확대시켰다. 역설적이게도 거대한 재정적자는 198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수요에 기초한 소비붐이라는 「非意圖的인 케인즈세계」로 인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수요는 국내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였으며, 그리하여 수입의 급속한 증가와 貿易收支 赤字의 팽창을 초래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금융시장에서 소위 驅逐效果를 초래하였으며, 인플레이율이 떨어진 후에 조차도 이자율을 높게 만들었다. 지속적인 높은 이자율은 貿易收支 및 經常收支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해 달러화의 강세를 계속 유지했다. 따라서 엔화의 약세도 계속 유지되었다.

1980년대에 日本은 「海外通商規制法」을 개정하였으며, 이 법안은 日本과 여타 국가들 간의 자본거래를 자유화시켰다. 日本의 금융기관과 여러 투자자들은 이자율이 높은 미국의 公債를 대량으로 구매했다. 日本은 또한 달러화의 강세와 엔화의 약세를 배경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을 크게 증가시켰다. 그리하여 미국과 日本 간에 새로운 경제관계가 창출되었으며, 그 속에서 日本의 미국에 대한 經常收支 흑자는 미국에 대한 자본수지 적자로서 메워졌다.

그러나 1985년에 日本이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되고 미국이 75년만에 최초로 純債務國으로 됨에 따라 상황은 변하였다. 같은 해 9월에 선진 5개국(G-5) 頂上會談이 열렸으며, 그 후 달러화의 시세는 엔화 및 여타 주요 통화에 대해 급격히 하락하였다.

## X. 現在の 狀況과 問題點(1986년 ~ )

엔화價値의 급속한 상승은 1986년부터 1987년까지 景氣후퇴를 가져왔다. 다른 한편, 貿

易摩擦은 계속해서 심화되었다. 엔화강세와 무역마찰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以前에는 꺼려했던 해외공장 건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제조업의 이러한 움직임은 日本의 국내산업이 空洞化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낳았다.

1986년에서 1987년 사이에, 비록 일본경제를 둘러싼 불리한 여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와 함께 엔화價值 상승의 여파를 다스릴 수 있는 몇몇 요인들이 출현하였다. 그 중 한 가지는 원유가격의 급격한 하락이었다. 한 때 원유가격은 배럴당 35달러까지 올라갔으나, 이 당시에는 배럴당 10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다. 또 하나의 요인은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긴축정책에서 팽창정책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1986년과 87년에 걸쳐 두 차례 정부에 제출되었던 마에카와보고서의 영향 때문이었다.

1986년 이래로 정부는 국내수요를 振作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엔화강세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본경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87년 이래로 일본경제의 성장은 외국수요에 의한 것으로부터 국내수요에 의한 것으로 빠르게 이동하였다. 여전히 그 절대적인 크기는 상당하였지만, 엔화강세는 日本—美國 간의 무역 및 經常收支 불균형의 확대를 억제하였다. 또한 그것은 해외, 특히 NIEs와 ASEAN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증가시켰다.

훌륭한 경제적 성과로 인해 조세수입이 증가했으며, 오랫동안 고민해 오던 일본정부의 財政赤字가 해결될 기미를 보였다. 현재 일본경제는 그 동안의 훌륭한 성과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도 또한 주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과의 심각해진 貿易摩擦이다. 마찰이 정책적인 것으로부터 構造的인 것으로 바뀌었다. 1989년 가을 이래로, 日美構造問題協議(SII: Structural Impediments Initiative)가 시작되었고, 양측은 서로의 경제구조에 대해 비난해 왔다. 이제 무역마찰의 대상품목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 부문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섬유제품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무역마찰은 이미 이들 산업에서 成熟期에 도달해 버린 미국을 급속히 따라잡았던 日本의 책임이 크다. 반도체나 첨단산업에 관한 무역마찰은 21세기 초반의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이라는 새로운 특징을 띠고 있다.

두번째 문제는, 일본경제의 훌륭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정치부문에 존재한다. 정치적 불안은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不信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불신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자민당의 몇몇 주요 간부들에게 리쿠르트회사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한 소위 「리쿠르트사건」과 관련이 있다. 두번째 이유는 정부와 自民黨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1989년에 도

입한 消費稅로부터 기인한다. 세번째 이유는 미국이 일본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쌀의 수입자유화 가능성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이다.

세번째 문제는 일본정부의 對外經濟開發援助政策과 관련되어 있다. 1980년대의 긴축재정 하에서도 對外經濟開發援助(ODA: Official Development Aid)豫算은 국방비지출과 함께 증가해 왔다. 1988년에 日本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최대의 援助供與國이 되었다 그러나 日本의 ODA에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경제적 효율성과 대규모 사업에만 치중하는 성향이 있다. ODA의 이러한 성격은 원조수혜국의 지배권력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되었다. 이 경우 日本의 대기업이 그 사업에 참여하고 대부분의 자본재가 日本으로부터 공급되기 쉽상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부패의 온상이 되기 쉽다. 흔히 수혜국에서의 日本의 파잉개입은 일반국민들의 눈에는 日本의 경제침략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에서 日本의 ODA는 현재 중요한 국면에 처해 있다.

### 〈參 考 文 獻〉

- 柴垣和夫, 『日本資本金融分析』, 東京大學出版會, 1965.
- \_\_\_\_\_, 『日本資本主義の論理』, 東京大學出版會, 1971.
- \_\_\_\_\_, 『日本經濟研究入門』, 東京大學出版會, 1972.
- \_\_\_\_\_, 「財閥解體と集中排除」,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 編, 『戰後改革7・經濟改革』, 東京大學出版會, 1974.
- \_\_\_\_\_, 「産業構造の變革」,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 編, 『戰後改革8・經濟改革』, 東京大學出版會, 1975.
- \_\_\_\_\_, 「石油危機後の日本資本主義」, 『經濟學批判』, 第3號, 社會評論社, 1977.
- \_\_\_\_\_, 編著, 『世界のなかの日本資本主義』, 東洋經濟新報社 1980.
- \_\_\_\_\_, 「昭和50年代の日本經濟」, 武田隆夫・林 建久 編, 『現代日本の財政金融』, 第3卷, 東京大學出版會, 1986.
- 柴垣和夫・林 建久・山崎廣明, 『講座・帝國主義の研究6・日本資本主義』, 東京大學出版會, 1973.
- 柴垣和夫・大内秀明 編, 『講座・今日の日本資本主義4・日本資本主義の支配構造』, 大月書店, 1982.
- Shibagaki, K. "The Early History of the Zaibatsu," *The Developing Economies*, Vol. 4

No. 4, 1966.

\_\_\_\_\_, “The Logic of Japanese Imperialism,” *Annals of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AISS)*, No. 14, 1973.

\_\_\_\_\_, “Japan’s Developing Aid Policy as Motor for the Asia-Pacific Cooperation,” *AISS*, No. 27, 1985.

\_\_\_\_\_, “Studies in Japanese Capitalism: A Survey with Emphasis on the Contribution of the Marx-Uno School,” *AISS*, No. 30, 1988.

\_\_\_\_\_, “Japanese-American Economic Friction: Its Causes and Historical Significance,” *AISS*, Special Issue, 1989.